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강절 제1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0. 큰 영화로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대강절 첫 주일 아침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욕심의 별판을 질주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우리 영혼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우리 얼굴에 햇살처럼 환한 웃음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치유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마른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에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사랑과 이해와 우정의 샘물을 대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늘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참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55. 대강절(1)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전나래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427. 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성경봉독 .....	I. 빌3:12-16 .....	인도자
	II. 시25:1-7 .....	조항미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목표를 향한 달음질 .....	장영숙전도사
	II. 마땅히 가야 할 길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헌신의 찬송 ..... 497.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다함께
- 헌금봉헌 ..... 다함께
-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등진 채 걷는 성공의 길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때때로 비틀거린다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4여선교회 주최 예배	12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b>다음 주 예배 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송동준 집사

<b>12월</b>	영접위원	한상익	김훈동	최철수	안정숙	정영선	유혜경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윤주원	조병주	박효선	강순배

##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 게으름

(지난주에 이어서) 게으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정신에는 헛된 분심만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세상 것들의 함정에 빠지며, 점점 그것들에게 사로잡혀 결국은 수도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정말로 심각한 것임을 알았고 또 우리 영혼에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주된 원인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살후3:6-12).

바울은 게으름의 원인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잘못이 많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란 존경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쉽게 남용하기 때문에 고요한 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는 게으름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런 사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만하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 그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사람,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고 말한 사람(고전9:14), 열방들의 교사, 복음의 선구자인 바울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일을 태만히 하며 육체적으로 게으른 우리, 복음을 선포하거나 교회를 돌보는 일은 말지 못했고 다만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만 맡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게으름에서 생겨나는 해악을 보다 분명히 보여 줍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게으름에서 호기심이 생겨나고, 호기심에서 규모 없는 행동이 생겨나며, 규모 없이 행동하는 데서 온갖 종류의 악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 치료책으로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한층 더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명령을 토대로 하여 성장한 이집트의 거룩한 교부들은 수도사들, 특히 젊은 수도사들이 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도사들이 계속 일함으로써 게으름을 몰아내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섬겼으며, 그러한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라고 믿었습니다. 교부들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수천 마리의 악령들의 포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노련한 교부인 사부 모세(Abba Moses)가 나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막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지 않았을 때에, 나는 매사에 열의가 없고 게으른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나는 사부 모세에게 가서 “나는 어제 게으름 때문에 크게 번민하고 약해졌는데, 사부 폴(Abba Paul)을 만나러 가야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부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게으름에서 해방되기는커녕, 그것에 완전히 복종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떠났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내와 기도와 손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한층 더 심하게 공격해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존 카시안)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우체부 아저씨, 편지함 위에 우편물을 올려놓아 주세요.  
새가 동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어요. 열어보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어미 새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터마마이신 조정래 사모님께서 어미 새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체통에 써 붙이신, 우체부 아저씨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새끼들은 알에서 무사히 부화했고  
어미 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앞에서 놀라고 두려웠을 텐 데도 미동조차하지 않고  
끝까지 새끼들을 품었던 어미 새의 사랑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모님의 따뜻한 경고(?) 메시지와,  
우편물을 편지함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으셨을 우체부 아저씨의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자들>>, 2006년 5월 호 중에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대강절** : 오늘부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절기의 예전(禮典)색은 절제와 삼감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중고등부실에서 1시 10분에 있습니다.
3. **입교교육** : 교회 사무실에서 1시에 있습니다.
4. **오후집회** : 제4여선교회 주최예배입니다.
5. **기획위원회** : 당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6. **기도의 밤** : 12월 3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모입니다.
7. **당회** : 2006년도 당회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8. **봉사** : 종묘 앞 급식 봉사가 6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봉사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9. **신앙실천** :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대강절 기간 동안 읽어야 할 성경을 정해 매일 정성껏 읽으십시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 헌화 : 임창선 권사 (남편 故조희상 집사 추모)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